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1월 2일(금)
(음력 11월 14일)
Пятница
2 января 2026 г.
№ 1 (1216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맞이 행사를 찾아온 주위 할아버지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고밀렙스키,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시장 공식 취임

파벨 고밀렙스키가 사할린주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시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고밀렙스키의 선출은 지난 12월 23일 열린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의회 정기회의에서 의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확정됐다. 구역 시장의 임기는 5년이다. 취임식은 지난 12월 27일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행정부에서 열렸으며, 파벨 위탈리에유츠 고밀렙스키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서를 했다.

사할린 수색대원들, 특수군사작전 현장에 물품 전달

새해 명절을 앞두고 사할린주 수색운동 대표단이 특수군사작전 현장을 방문했다. 사할린주 러시아 수색운동 지부 의장인 아르쭘 반두라와 러시아 수색운동 협의회 위원 안톤 토르가체브는 여러 군 부대를 찾아 장비와 필수 물품을 전달했다. 병사들에게는 위장망과 안티드론 담요를 비롯해 참호용 양초, 의료용품, 방한 의류, 발전기, 디젤 히터, 각종 기술 장비 등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물자가 지원됐다.

신문 발행 표에 따라 새고려신문 다음호는 2026년 1월 16일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리마렌코 주지사, 대통령 주재 국정회의 참석

12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러시아 경제를 위한 인력 양성 문제를 주제로 국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업·전문 교육 체계가 시대 변화와 고용주들의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이미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재 러시아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이 97.8%에 달하고, 실업률은 2.2%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높은 고용 수준이자 역사적으로도 최저 수준의 실업률에 해당한다. 특히 사할린주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평균 실업률은 0.3%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으로의 10~15년은 거대한 기술적 변혁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행정부와 연방 정부, 전 산업 분야의 관계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수법의 도입을 요구한다”며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토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분석 역량, 특히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전문 교육 체계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학과 전문대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서 보다 높은 수요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제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대학인 ‘사할린테크(SakhalinTech)’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500명 규모의 현대식 학생 캠퍼스 입주가 이미 시작됐으며, 2027년에는 테크노파크와 온실을 포함한 교육·연구 단지가 개관될 예정이다. 대학은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산업을 비롯해 신에너지, 해양 경제, 운송·물류,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분야 등이 주요 교육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는 국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할린테크 졸업생들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해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주요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섬에 정착해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대륙봉 프로젝트를 위한 엔지니어 인력 양성, 수산업 단지와 석탄 산업, 정보기술 분야 전문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 현장에서 활용되는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과학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가스프롬의 거점 대학으로 지정돼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베르와 협력해 IT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21’을 출범했으며, 신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선도 공학 학교도 운영 중이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연방 프로그램 ‘우선순위 2030’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최상위 대학 그룹에 포함돼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도서 지역에서는 보건 의료와 문화 분야 인력 양성도 강화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태평양 국립 의과대학교와 보리스 슈킨 연극학교의 분교가 새로 개설됐다.

한편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노동 인력 부족 문제와 중등 직업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는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 프로젝트 ‘전문성’의 일환으로 사할린 광업 전문학교를 기반으로 한 광업 분야 교육·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됐으며, 이곳에서는 교육 장비와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됐다. 해당 클러스터는 향후 2년간 지역 기업 수요에 맞춰 6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 지도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은 확대돼야 하고, 청년과 그들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지역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할린주에서는 학창 시절부터 미래의 경력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프레유니버사리움’ 형태의 교

육기관인 ‘사할린테크 얼라이드’ 학교가 설립돼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진의 지도를 받으며 과학·예술·스포츠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사할린테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별 경력 계획이 수립되며, 예비 졸업생들은 희망 직종과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참전 용사들의 직업적 자아실현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의 주도로 참전 용사들이 평화로운 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프로그램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이 출범했다. 현재까지 50명의 참전 용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 행정’ 분야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역 및 지방자치 기관 산하 조직에 채용됐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모든 교육 참가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과업을 제시했으며, 해당 업무는 사할린주 국가관리부와 사할린 지부 ‘조국 수호자’ 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참전 용사들의 취업 지원은 이 재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주 정부는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향후 귀환할 다른 전투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을 돌이켜보는 사할린한인단체들

사할린주한인협회, 2025년에 87개이상 행사 개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2025년은 매우 생산적인 한 해였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로만 87개 이상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그 외에도 사할린주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 특별법 일부 개정을 위해 우리 단체는 2세 사할린 동포 명단 현황 업데이트 작업을 약 93%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5년 2~3월 두 달간 한국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자료 수집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6월 18일에는 한국 국회에서 <사할린 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고, 우리 단체 대표들이 참가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경석 전국사할린국동포연합회장과 협의해 사할린주한인협회와 공동으로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준비해 한국 국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 의료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며 생필 의약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상담실 운영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과 2026년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또한 1세대를 위해 새고려신문을 계속 구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0여 부를 구독했습니다.

1세대들에게 선물도 전달합니다. 2025년에는 설날,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어버이날, 러시아 어머니의 날 맞아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연중 최소 2회 자선 식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더 자주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지방 대표부들도 가능한 경우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과회를 열고 있으며, 이에 지방 회장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KIN(지구총동포연대)에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10년 이상 1세대 모두에게 음력 달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단체와 함께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을 두 차례 순회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할린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공헌 프로젝트 <세대연결, 전통의 이어줌>을 진행했으며, 11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해 <한 가정에서> 축제는 주 내 6개 도시(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토마리)에서 열렸습니다. <세대연결, 전통의 이어줌>프로젝트의 마무리 행사로는 <장인들의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에는 360명이 참여했으며, 시식회에서는 비빔밥 700인분, 만두 1,000개, 한국 전통 과자 300인분 이상, 국수 1,000인분 이상이 제공됐고, 한식 마스터클래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할린 김치 축제는 5주년을 맞아 약 300명이 참가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식문화와 요리 발전의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물결을 일으켜라. 사할린> 포럼 세션에서도 철저한 준비 덕분에 참가자들과 대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이 행사를 지역간, 나아가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축제 프로젝트는 전국 최

고의 지방자치단체 사례 공모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사할린의 문화 및 요리 분야에서 조직력과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할린주 지사장이 수여되는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는 유일한 사회단체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5년 제2회 극동 동양무술 축제(사할린주 지사 배)에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캄차트카, 사할린에서 총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니와 시장 배 태권도 축제를 개최했으며, 전통 씨름 대회도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야생 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앵초와 고사리 요리 마스터클래스 2회를 진행했고, 최종 행사로 <우영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 러시아 연방 보안국(FSB)의 주도로 5월에는 샤희초르스크 학교에 소련 영웅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의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이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6일 한국 전통 과자 만들기, 서예, 태권도 등 다양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 김나지아에서는 '한민족 문화의 날'을 열어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베라), '토르나도' 스포츠클럽과 공동으로 여러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고 잡채 만들기, 태권도 기초 기술 익히기, 한국 전통 복 배우기, 한민족 공예 활동 교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 축제를 열었으며, 약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사할린주와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 국제학술회에 참가했으며,

2025년에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과 공동으로 한국어 경시대회를 두 차례(3월, 10월) 개최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역사적 기억 보전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된 한국인 27명(미주호 학살 사건)의 유해 발굴을 위해 러시아 수색운동 사할린지부와 협약을 맺고 발굴 작업장 3곳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비 수리를 위해 석판 3개를 주문했습니다.

지방 대표부들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에서는 한국어 교육 과정(강사 유경옥)이 개설됐으며, 흙스크·코르사코브·돌린스크에서는 한식 요리 교실이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토마리와 마카로브에서는 보조금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원들은 사할린주 청년의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년의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회위원회, 사할린주 사회원에 진출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 활동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따뜻함과 아늑함이 가득하길, 그리고 모든 일에 조화와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육상경기장 인근에 새해맞이 휴식 공간 조성

새해를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극동 지역 최대 규모 육상 경기장 앞 광장에 온 가족을 위한 새로운 축제 휴식 구역이 문을 열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이 공공장소의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는 사할린주 정부 공보실에서 전한 내용이다.

광장 중앙에는 새해 트리가 설치되었다. 트리는 다가오는 2026년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하여 금색과 빨간색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새로운 휴식 구역 곳곳에는 미끄럼틀과 동화 속 동물을 형상화한 얼음 조각상들도 들어섰다.

이곳에는 스케이트 대여소가 있는 무료 아이스링크도 문을 열었다. 방문객들을 위해 포토존과 푸드트럭이 있는 미식 구역이 운영된다. 그곳에서는 음식과 따뜻한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Новая новогодняя зона отдыха появилась у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новую праздничную зону отдыха для всей семьи на площади возле крупнейше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нтре площади установили новогоднюю ель. Ее украсили золотыми и красными бантами в честь символа наступающего 2026 года —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ового места отдыха также появились горки и ледовые скульптуры сказочных зверей.

Здесь же заработал бесплатный ледовый каток с прокатом коньков.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работают фотозона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с фудтраками. Та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блюда и горячие напитки.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ая 1000-рублевая купюра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в оборот постепенно и обращаться наравне с банкнотами образца 1997 года. Как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по словам зампреда ЦБ Сергея Белова, выход

в массовое обращение ожидается в конце 2026 года или в 2027 году.

유즈노사할린스크, 새해맞이 탁구 대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기드로스트로이' 체육관에서 이틀간 새해맞이 탁구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사할린 지역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참가해 우승과 입상을 놓고 경쟁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돌린스크, 트로이츠크예 마을 대표들이 메달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대회 관련 세부 내용은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을 통해 전해졌다.

대회 첫날에는 성인 부문 경기가 치러졌으며, 드미트리 정과 예카테리나 웨덴체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둘째 날에는 2011년 이전 출생 아동들이 출전한 유소년 부문 경기가 진행됐다. 참가자 가운데에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가장 어린 선수도 포함됐다.

루드밀라 분다리 대회 심판장은 "이번 대회에는 탁구를 배운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참가자들도 출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 스포츠'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청소년(남녀) 부문에서는 와짐 보리소브와 워토리야 김이, 유소년 부문에서는 로스티슬라브 마그돌린스키와 밀라나 장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Новогодний турнир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вухдне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стоялись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Гидрострой».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турнире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за звание победителя и награды. Медали разыграли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а и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Взрослые сахалинцы сыграли в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в первый день турнира.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Дмитрий Тен и Екатерина Веденцева. На второй день к столам вышли дети до 2011 года рождения, самый маленький из них недавно пошел в первый класс.

По словам главного судьи турнира Людмилы Бон-

дарь,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участвовали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настольным теннисом менее полугода.

Отметим, что турнир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порт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лучшими признали Вадима Борисова и Викторию Ким, а среди младших детей — Ростислава Магдолинского и Милану Чан.

러시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자동 연장 중단

운전면허 유효 기간의 자동 연장은 2020년 도입된 한시적 조치였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종료된다. 리아 노위스티에 따르면 파벨 페다예브 러시아 국가두마 교통·교통인프라 발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자동 연장 중단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유효 기간이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운전면허증은 기존 규정에 따라 3년간 유효하다.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교체해야 한다.

페다예브 부위원장은 유효 기간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운전면허증은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며, 만료 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В России с 1 января перестану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родлевать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прав было введено в качестве временной меры в 2020 году.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перестану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родлевать с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ервый зампреда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по транспорту и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авел Федяев,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Все водительски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срок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х истек или истекает в период с 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по 31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будут действительны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Далее их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о заменить в обычном порядке.

(8면에 계속)

2025년을 돌이켜보는 사할린 한인 단체들

강제동원 사할린 동포 후손들의 권리 실현과 보호를 우선

사할린한인연합회 고영순 회장

비영리단체 「사할린한인연합회」는 2023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부모 세대가 사할린 섬으로 강제 연행된 사할린 동포 후손들의 권리 실현과 보호를 목표로 하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과 더불어 단체 정관에 명시된 활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행사 개최보다는 사할린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이해결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체에는 러시아 각지(사할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로스토프-나 도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와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아우르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공식 기관과 재외동포청,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총 9통의 서한과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 대

표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재외동포청을 방문하여 사할린 한인의 권리 보장과 영주귀국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현행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귀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세상을 떠난 부모를 둔 2세대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할린한인연합회는 사할린-한국 간 직항 노선 재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서한을 사할린주 지사 알레리리마렌코,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외무부 대표 블라디미르 노소브,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사할린 동포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 일시 방문 지원 등 공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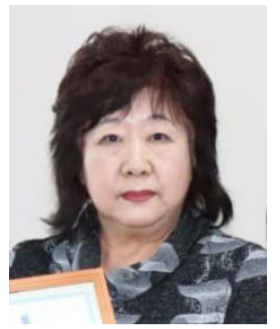
연합회는 한민족 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우리 단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방문객 약 3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인 '라면 축제'

를 개최하여 한민족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한국 제주도에서 '제주두루나눔' 탈패를 초청했으며, 이들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가 주최한 「러시아의 민족들: 사할린 한인들」 축제에 참여해 한민족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마루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원어민 강사와 동포 강사가 함께 참여해 즐겁고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사할린한인연합회 주최로 광복 80주년과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남부 사할린 및 쿠릴 열도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는 실용학술콘퍼런스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와 CIS 여러 지역에서 온 활동가들이 참석해 사할린 한인의 주요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리 동료이자 사할린한인연합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 알렉산드르 변호사(모스크바 거주, CIS 고려인 청년포럼 모스크바 코디네이터)는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가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사할린 지역과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에는 청년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팀은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버이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고 거동이 불편한 동포 어르신들을 찾아 식품 세트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동짓날을 맞아 팔죽과 새해 선물을 나누는 나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 제작진과 협력하여 지방 상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며, 사할린한인연합회는 모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운영팀이 실질적 활동과 사업 추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2025년은 새로운 운영팀의 출범과 함께 활동 방식의 모색을 시작하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활동과 사업을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시한인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첫해의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큼니다. 이는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의 공입니다.

특히 앞장서서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우리를 이끈 간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회장 박 웨니아민 님, 최금순 님, 김영숙 님, 차정자 님과 그 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텔레그램 채널 '사할린 한인'을 담당하고 있는 진 율리아 박사와 제작팀, 그리고 정금복 님과 율리아 스테블란스카야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주목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뮤니티의 목소리: 한인 사회의 소통 창구로서 텔레그램 채널 '사할린 한인'을 개설했습니다.

· 교육기관과의 협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사회적 기여 인정: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사할린지부와 '이웃돌봄'지역리소스센터부터 '사회 공헌' 부문에서 '호평(프리즈나니예)' 상을 수상

했습니다.

· 역사 기록 보존: 신 드미트리, 박 보리스, 최 왈렌틴의 저서 『1941 - 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에서 소련 고려인들』 제2판을 발간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문화 예술 후원: <토박이>다큐멘터리(8월 12일 첫 상영) 제작 지원 및 성공적인 개봉을 도왔습니다.

· 생생한 역사 기록: 새고려신문사와 공동으로 '사할린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 사회적 연대: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및 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지역 사회 참여: 가족, 사랑, 충실의 날(7월 8일)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 포럼(9월 18일) 등 주요 시정 행사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5월 15일 한국 전통 명절 어버이날, 7월 5일 동양김나지아에서의 전통 한민족 놀이 대회 '전통으로의 여행', 8월 17일 달네에 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 10월 5일에는 사할린주일반과학도서관에서 재외동포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화합된

팀워크로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감사: 한 달에 두 차례 시한인회 소속 노인정 어르신들의 정기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단체의 거의 모든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참여와 격려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속된 문화·교육 등 활동

무궁화 합창단과 한글학교(강사 이복순, 우리말방송 기자)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안미화 씨가 지도하는 한국 전통무용 동아리 활동도 재개되었습니다.

1월과 8월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주최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연례 체스대회(번개 체스, 속기 체스)를 개최하여 트로피와 메달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즐거운 설 명절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께 식품 세트와 쌀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7월 어부의 날에는 바다로 날들이(들놀이)를 조직하여 민속 의상을 입고 특별한 우하(생선탕)

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들은 함께 등산과 야외 활동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는 30회 이상 소집되었으며, 시한인회의 임시 총회와 정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많은 행사 준비를 위해 실무팀 역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지원 활동

특수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과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의 조달 및 발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를 위한 방탄조끼 구입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는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이 우리 단체에 새로운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빛나는 행사를 안겨 주고, 이를 실현할 힘을 더해 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취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한민족 문화유산 보전, 민족 간 화합, 자선의 해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천영곤 회장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한민족 문화유산 보전, 민족 간 화합 강화, 사할린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명 아래 2025년 한 해를 풍성한 성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은 대규모 음력 설맞이 행사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경축 행사와 다양한 퀴즈, 놀이, 공연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특히 다가온 뱀의 해를 상징하는 특별한 손님인 살아 있는 비단뱀 '와실리'는 행운의 탈리스만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품으로 마련된 30개의 푸짐한 상품 가운데 최고 상품인 냉동고가 당첨자에게 전달되는 순간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사할린한인' 시한인회는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4월에는 전 러시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

가족들을 위한 '우주 주말' 행사에 참여해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축제의 즐거움과 따뜻한 지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75세 이상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공식 만찬을 주최하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 요리와 자선 활동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5월 '선의의 장터'에서 '사할린한인' 팀은 나물, 김치볶음, 냉면 등 전통 한국 요리를 선보이며 모든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7월에는 극동연방관구 '조국 수호자 컵' 대회 기간에 대규모 한국 전통 음식 시식회를 개최해,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여름의 주요 행사로는 8월 17일 성대하게

열린 광복절 기념 축제가 있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전통·한국적 현대의 축제로, 본회가 민족 간 우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사할린한인' 시한인회는 지식 나눔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11월 '행복한 엄마' 축제 기간에는 인기 있는 볶음밥 만들기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해, 많은 장애아 어머니들에게 한민족 요리의 비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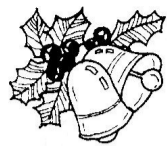
연말을 장식한 행사는 빛과 희망의 재생을 상징하는 동짓날 기념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사할린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에서 진행되어 한민족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

습니다.

2025년은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들에게 활발한 창조의 시간인 동시에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에 기여한 한 해였습니다. 축제와 자선 활동,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는 전통을 지키는 한편, 모든 사할린 주민을 위한 따뜻함과 상호 부조, 그리고 통합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젝트와 중요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따뜻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Счастья в Новом Году!



Ким поздравил Путина с Новым годом

Москва, 28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направил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назвав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ценным общим достоянием», сообщ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Ким назвал этот год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когда две страны «неуклонно писали великую биографию альянса» благодаря «полной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е и бескорыстному поощрению», сообщает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поздравил Путина с Новым годо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18 декабря Путин сам направ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новогоднее послание. Ким заявил, чт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Россией еще больше укрепились и стали «самым искренним союзом, основанным на общности крови, жизни и смерти в одном окопе». «Теперь никто не сможет разорват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двух стран и разрушить их единство, которое прочно опирается на воплощение сильной воли и способности защищать справедливые чаяния времени и исправлять историю», — сказал он.

Встречаем Новый 2026 год!

Новогодние выходные в 2026 году продлятся с 31 декабря до 11 января. В эти дн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удет наполнен не только яркими огнями, но и интерес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концертами, выставками, спектакля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и гуляньями.

Декада спорта и здоровья

В янва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традиционная Декада спорта и здоровь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глаш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четырех мероприятиях для всей семьи и собрать оригинальный памятный брелок-пазл, состоящий из четырех частей – по одной за участие в каждом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м дне.

Расписа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5 января с 11:00 до 13:00 – массовые катания на льду стадиона «Космос» в парке им. Гагарина. В это время прокат коньков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6 января в 10:00 – новогодний забег. Выдача номеров – в 9:30, старт – в 10:00. Место регистрации и старта – площадка у кафе Mama coffee;

7 января с 11:00 до 13:00 – веселые старты в парке на площадке у Mama coffee;

8 января в 10:00 – гонка «Рождественская лыжня» на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Триумф». Выдача номеров – в 9:30, старт забегов – в 10:00. Если у вас нет своих лыж, можно будет взять их бесплатно в пункте прокат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едущие, аниматоры и островные диджеи.

Новогодний поезд «Зимняя сказка»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от Южного до Корсакова и обратно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сказочный поезд «Зимняя сказ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жителям острова его подарил сам Дедушка Мороз.

Пассажиры поезда не просто насладятся пейзажами зимнего Сахалина, а ещё посмотрят выступление шоу-проекта «Магнитофон» 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 фокусами о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ллюзиониста.

В Рождество, 7 января, в Корсакове также пройдет специальная рождестве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А купить билет на сам поезд можно в кассе АО «ПКС».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глашает на бесплатные экскурсии

В январе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различные бесплат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городу.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ок вы посетите основные площади, знаковые места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города и узнает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фактов про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Расписание экскурсий:

7 января в 12:00 и 16 января в 17:00 – экскурсия по самому старому зданию города «Резиденция тайн»;

14 и 20 января в 18:00 – автобусная экскурсия «Огни ночного города 2.0».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17, 24 и 31 января в 11:00 – обзор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ым местам города.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23 и 30 января в 17:00 – экскурсия по столярной мастерской «Живой инструмент»;

24 января в 13:00 – автобусная экскурсия «Две жизни одного города».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31 января в 11:00 – обзорная автобус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муралам «Город-галерея».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Красная Огненная Лошадь: характер 2026 года и что он принесет

«Главная черта года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 высокая энергия и стремление к действию»

2026 год — год Красной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которая в китайском календаре символизирует страсть, энергию и стремление к переменам. Новый год принесет ветер стремительных перемен, жажду свободы и будет похож на лихой галоп. Лошадь сулит невероят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тем, кто готов действовать смело и решительно, но тем, кто предпочитает осторожность, стоит крепче держаться за поводья. Что стоит ждать от 2026-го и как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переменам.

Символ 2026 года: что означает Красная Огненная Лошадь

Каждый год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есет свою уникальную символику, которая влияет на характер и события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имвол 2026 года, Красная Огненная Лошадь, объединяет в себе сильную энергетику огня, яркую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и мощь лошади, а также особое влияние красного цвета.

Красная Лошадь — символ страсти, силы и движения. Она олицетворяет энергию, решимость и стремление к свободе. Красный цвет же в китайской культуре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удачей, богатством и энергией, а также с высокой активностью и страстью. В сочетании с элементом Огня Лошадь в китайской традиции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триумфа и новых начинаний, упрямства и энергии, которые приведут к успеху при прави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Характер года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энергия, сильные и слабые стороны

Главная черта года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 высокая энергия и стремление к действию. В такой год люди становятся более амбициозными, готовы к рискам и новым свершениям. Это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рем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оиска новых путей и расширения горизонтов. Тем не менее, чрезмерный порыв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эмоциональному и физическому истощению, а также импульсивным поступкам. Какие же сильные и слабые стороны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будут влиять на нас на протяжении года?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 Динамичность и инициативность: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ремя для проявления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Не бойтесь брать инициативу в свои руки и вдохновлять окружающих.

- Страсть и мотивация: год поможет реализовать давние идеи и мечты благодаря внутреннему огню и решимости.

- Энергичность: огненный скакун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вать трудности и достигать целей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й активности и выносливости

Слабые стороны

- Импульсивность: стремление к быстрым результатам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еосторожным решениям, а в погоне за успехом — потерять баланс и терпение.

- Перенапряжени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энергии потребует умения управлять стрессом и отдыхать.

- Рискованность: склонность к рискам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финансовым или личным потерям.

Как год Лошади влияет на работу, деньги и отношения

2026 год сулит активные перемены и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жизни. В работе огненный скакун стимулирует инициативность и лидерство, в финансах — придаст энергии для роста при разумном управлении. В отношениях же — добавит страсти, но потребует терпения и умения слушать.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успешно пройти через этот год,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баланс,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импульсы и использовать энергию Лошади с умом. Тогда 2026 год станет временем значимых достижений и личного роста. Как же именно год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повлияет на карьеру, финансы и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Влияние на карьеру

Год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способствует стремительному карьерному росту для тех, кто умеет проявлять инициативу. Наступающий 2026 год идеально подойдет для запуска новых проектов, расширения бизнеса или перехода на более высокую позицию. Энергия Огня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мотивацию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Для кого-то настанет время перемен в карьере: смена работы, повышение или запуск новых бизнес-проектов.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баланс и не принимать поспешных решений,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интуицией и осознанностью.

Будьте готовы к неожиданным возможностям,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нести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гресс в рабочих проектах. Однако важ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вою импульсивность — поспешные решения или необдуманные шаги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конфликтам или ошибкам. Ключ к успеху — в настойчивости, умении

находить баланс между активностью и умеренностью в делах.

Влияние на финансы

Финансовая сфера в 2026 году обещает рад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заработка и увеличения дохода. Для бизнесменов и инвесторов — отличное время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и новых вложений, особенно в сферах, связанных с творчеством, инновациями или путешествиями.

Тем не менее, высокий темп и энергия года мог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необдуманным расходам или рискован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Важно заранее проработать финансовую стратегию и избегать импульсивных покупок.

Влияние на отношения

Год Красной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благоприятен для романтики, страсти, укрепл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их связей или поиска новых впечатлений.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гармонию, важ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года проявлять искренность, избегать конфронтаций и относиться к партнеру с пониманием. Из-за высокой энергичности и порывистости возможны споры и недоразумения. Учитесь слышать истинные желания партнера, чтобы гармонизир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Кому повезёт в 2026 году особенно, а кому стоит быть осторожнее

Огненная Лошадь принесет вихрь стремительных перемен, яр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дерзких вызовов. Однако гороскоп предупреждает: в 2026 году удача будет на стороне смелых и амбициозных, но потребует от всех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предельной внимательности и готовности к акт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Какие знаки восточного гороскопа оседлают удачу, а кому потребуются вся мудрость и сила, чтобы не вылететь из седла?

Знаки, которым будет сопутствовать удача в 2026 году

1. Знак Лошади

Год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ого знака станет временем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ов, новых знакомств и карьерных прорывов. Энергии и драйва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й — главное, не расплыться.

2. Знак Тигра

Тигры в 2026 году смогут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проявить смел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давние идеи и укрепить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Этот год пода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и расширения горизонтов.

3. Знак Дракона

Драконы, известные своей внутренней силой и харизмой, в 2026 году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благоприятные перемены в карьере и финансах. Возможны важ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накомства и выгод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4. Знак Козы (Овцы)

Для Козы 2026 год станет временем гармонии и реализаци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Удача ждет тех, кто сумеет проявить терпение и мудрость. Год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особенно подходит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емейных связей и личных отношений.

Знаки, которым стоит быть особенно осторожными

1. Знак Крысы

Люди под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знака Крысы в 2026 году столкну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финансами и карьерой. Важно избегать поспешных решений, не брать на себя лишн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и проявлять терпение.

2. Знак Свиньи

Для Свиньи 2026 год принесет неожиданные испытания — возможны конфликты в лич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ли сложности с финансами. Лучше избегать риск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и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здоровью.

3. Знак Петуха

В 2026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этого знака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роявлять большую осторожность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фере, избегать конфликтов и споров.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спокойствие 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эмоции.

4. Знак Обезьяны

Обезьяны должны быть особенно внимательны к своим финансам и лич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стоит спешить с важными решениями и рисковать здоровьем.

Главный урок наступающего года — умение держать руку на пульсе, чутк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еремены и, подобно искусному наезднику, сохранять баланс между стремительным порывом и разумным контролем. Год принесет энергию для прорыва, но потребует за нее высокую цену —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аждый шаг.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дал дань уважения погибшим госслужащим

26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гласил на обед семьи полицейских, пожар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и других лиц,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и в ходе прочих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Я часто слышал, что трудно найти где-либо в мире страну, столь же безопасную, как наша. Этого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упорному труду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Благодаря благородной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тех, кто бросился в бушующее пламя и бурные волны, люди могут наслаждаться мир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ью»,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жертвы, принесённые ради защи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людей, необходимо чтить вечно. Это забо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принцип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особой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особые жертвы», — сказал Ли Чжэ Мён.

Спецпрокурор требует 10-летнего тюремного срока для Юн Сок Ёля

26 декабря групп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Чо Ын Сока потребовала 10-летнего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для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за ряд преступл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введ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декабре 2024 года. В ходе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заседани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окружном суде Сеула,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совершил тяжк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попытавшись захватить власть, после чего предпринял попытки сокрытия и оправдания своих действий.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нарушил права девяти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допущены на совещание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плана объявл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уничтожил ряд документов, препятствовал обыску и задержанию. Кроме того,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обвиня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 отдал распоряжение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в прессе заявлений, содержащих ложные сведения, а также удалении записей с защищённых телефон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тогдашними военны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В обвинительном заключении групп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отребовала для Юн Сок Ёля пять лет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за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ние его задержанию, три года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ложных сведений в прессе и уничтожение записей, а также два года за фальсификацию документов.

Центры помощи беженцам из КНДР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На фоне резкого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ланирует объединить два центра их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лавный центр Ханавон находится в Анс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н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интеграции женщин, бежа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Филиал центра Ханавон,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Хва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решает проблемы беженцев-мужчи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меры по интеграции этих двух объектов и перемещению персонал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 сообщил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министерства Чан Юн Чжон. Самое большое число беженцев из КНДР зафиксировано в 2009 году – 2.914 человек. В 2019 году их было 1.047 человек,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236 человек.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выйдет в широкий прокат в США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спеш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ся в нескольких кинотеатрах пяти городов США, в январе выйдет в широкий прока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25 декабря компания Neop,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дистрибуцией фильма в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Голливудское издание Deadline включило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в список лучших независимых фильмов 2025 года. Герой фильма - талантливый химик, который теряет работу, и,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ю, становится серийным убийцей. Фильм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вошёл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на премию «Оскар»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Число кибервторжений за 10 лет удвоилось

За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число кибервторжений, включая хакерские и DDoS-атаки, почти удвоилось. Как сообщили 26 дека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в 2014 год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2.291 подобный инцидент, а в 2024 году практически вдвое больше - 4.526. Между т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д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лишь 21,8% виновных в таких противоправных действиях. Для других видов киберпреступлений, таких как фишинг и онлайн-мошенничество, уровень раскрываемости составил 52,1%.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снова началась эпоха "Голубого дома"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вернулся в комплекс Чхонвадэ

В полночь 29 декабря по сеульскому времени (18:00 мск 28 декабр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илась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Ёнсанская эпоха".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и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ернулись в комплекс Чхонвадэ, или "Голубой дом",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был резиденцие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Ровно в 00:00 с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районе Ёнса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был спущен президентский штандарт "понхванги" - флаг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феникса,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й верховн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власть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новременно такой же флаг был поднят над Чхонвадэ, что на севере столицы. Это формально зафиксировало возв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место.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официаль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новь стало Чхонвадэ, а также восстановлен прежний логотип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офиса.

29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впервые прибыл на работу в "Голубой дом". Это произошло спустя примерно три года и семь месяце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ыла перенесена в центр Сеула решением преды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 мае 2022 года.

Возвращение в Чхонвадэ в Сеуле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но и как политическое символ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водится четкая линия разграничения с "Ёнсанским периодом", омраченным введ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и последующей процедурой импичмента. Завершение переезда до конца года также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как сигнал о намерении начать нов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этап уже с января.

При этом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знают, что Чхонвадэ исторически подвергался критике как изолированное от общества "дворц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ассоциировавшееся с авторитарными моделями власти. С учетом этого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было уделено вним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чих помещений. Основным местом работы президента станет не главное 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а, а офис в корпусе Ёмингван, где также размещены кабинеты ключевых помощников -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уководи-

тел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штаба и советник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ая планировка, по замыслу, должна обеспечить постоянное лич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избежать концентрации влия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физ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к президенту. В окружении Ли Чжэ Мёна выражают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его стиль работы и склонность к прямому общению с обществом позволят избежать прежних обвинений в закрытости власти.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выезд президента из Ёнсана и возвращение в Чхонвадэ позволил вздохнуть с облегчением многим. Хотя "Голубой дом" находится тоже в столице, но на севере,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ом для этого районе, где чиновники никому не мешают, Ёнсан - это самый центр оживленного мегаполиса.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Ёнсана жаловались на неизбеж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перестраивать здания, а также на шум от демонстраций, постоянно проходящих перед комплексом. Служба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всегда отмечала, что им крайне сложно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обеспечивать необходимый уров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и генштабу пришлось сильно потесниться, освобождая место для Юн Сок Ёля и его помощников в Ёнсане.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многие предсказывали, что переезд Юна из "Голубого дома" в Ёнсан будет отменен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его правления - так и произошло. Юн, который объяснял тогда переезд желанием "быть ближе к людям" и "чаще общаться с обычным народом", коммуникацию перевел на язык попытк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енных и полиции для блокировки парламента и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за что и был досрочно снят с поста и сейчас ждет суда. В итоге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говорил, что намерен вернуться в Чхонвадэ.

Правда,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вопрос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долгой окажется новая "эпоха Чхонвадэ". Президент Ли также заявлял о намерени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еренести столицу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в Сечжон и, по словам его окружения, не исключал, что завершить президентский срок может уже т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им Чен Ын установил девятилетний рекорд по числу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Лидер КНДР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провел рекордно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вять лет количество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заметную активизацию как во внутренней, так 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ведущего базу анализа публичной актив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 концу ноябр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МИ КНДР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118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Ким Чен Ына. С учетом сообщений до 27 декабря общее число достигло 131, что стало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 2016 года и немного превысило уровень прошлого года (127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фоне пандемийного 2020 года, когда число публичных выходов Ким Чен Ына сократилось до 55,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блюдается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его активност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сновную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составили участие в официальных церемониях, выездные инспекции и руководства на местах, а также во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лидер КНДР уделял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Местное развитие 20x10",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кращ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диспропорций. Это выразилось в частом участии в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и больниц, а также в инспекциях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Военная активность, включая наблюдение за ракетными пусками и спуском на воду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составила 21 публ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что меньше показат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31).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плане Ким Чен Ын в 2025 году совершил пять контакт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клю-

чая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и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президентом Лаоса и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Компартии Вьетнама. Кроме того, состоялось около десяти встреч с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легациями, включая три встречи с секретарем Совбеза России Сергеем Шойгу, что,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из Сеула, подчеркивало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Анализ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лиц показал укрепление позиций ближайшего окружения лидера. Чаще всего Ким Чен Ына сопровождал секретарь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Чо Ён Вон - он был с лидером на 22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Дочь вождя Чу Э, формально не учитываемая в базе данных как сопровождающее лицо,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чаще появляется рядом с отцом на ключе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ключая военные инспекции и зарубежные поездки, что продолжает привлекать вним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В целом эксперты делают вывод, что Ким Чен Ын, несмотря 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циркулировавшие на Западе слухи о проблемах со здоровьем, наоборо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рост своей активности и выглядит бодро. Отмечается также и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внешних контактов с дружественными странами, включая фактически первое участие Кима в реально многосторонн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 военном параде в Пекине. Из этого также делается заключение, что не стоит говорить 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изоляции Пхенья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Paris Baguette открывает круглосуточные магазины

Сеть магазинов-пекарен Paris Baguette, принадлежащая SPC Group,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В дневное время магазин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персоналом, а с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до утра – по системе «без продавца». Это позволи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дажи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ремени, -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SPC Group. Покупатели смогут войти в магазин в ночное время, пройдя процедуру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по кредитной карте, и совершить покупку, отсканировав штрих-коды товаров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й кассе. С октября в таком режиме работают два магазина Paris Baguette в Сеуле. С 2026 года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буд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недряться в магазинах с высокой посещаемостью.

KBS World



병오년

음력설 2.17
 한식 4.4
 단오 6.19
 초복 7.15
 중복 7.25
 말복 8.14
 추석 9.25
 성탄절 12.25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5	12	19	26	2	9	16	23	2	9	16	23	30		
화	6	13	20	27	3	10	17	24	3	10	17	24	31		
수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25			
목	1	8	15	22	29	5	12	19	26	5	12	19	26		
금	2	9	16	23	30	6	13	20	27	6	13	20	27		
토	3	10	17	24	31	7	14	21	28	7	14	21	28		
일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29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29		
화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수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목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금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토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일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31	7	14	21	28		
화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29		
수	1	8	15	22	29	5	12	19	26	2	9	16	23	30	
목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토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일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화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수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목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금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토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일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5	20	4	19	5	20	5	20	5	21	6	21	7	23	7	23	7	23	8	23	7	22	7	22

[신년사]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6년, 동포정책의 근본적 전환 시작”

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재외국민등록제 개편...정책 기반부터 정비 재외선거제도 개혁·한글학교 지원 확대...동포 사회 숙원 과제 해결 세계한인대회 신설·한상·청년 연계 강화...글로벌 동포 네트워크 확장 귀환 동포 정착 지원·비자 통합 추진...포용적 동포 정책 본격화

[2026년 재외동포청장 신년사]

존경하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재외동포청은, 보다 효과적인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동포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6개월간 9차례의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였습니다.

소통 플랫폼 「동포ON」 방송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이관받아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영주귀국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는, 동포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동포 현황과 해결 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구비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 출입국 절차와 국내 활동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동포 사회의 오랜 고충이자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투표하기 위해 수백~수천KM를 이동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선거권,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동포청·교육부·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콘텐츠 개발과 교사 초정연수 통합 운영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도 적극 추진하고 동포 밀집 거주지역 재외공관에는 동포전담영사를 복원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동포 사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대·직능·분야를 아우르는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

턴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거주국 내 동포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동포 공공외교 활동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려인·사할린·입양·재일·원폭피해 동포 등에 대한 귀환·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이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포청년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합하여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외 동포간 상호 교류 지원 등 포용적 사회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외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동포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통상, 외교·평화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갖춘 동포 전문가로 구성된 '재외동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외동포가 동포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여러분!

모국의 위상이 재외동포의 위상으로 직결되고 재외동포의 위상이 모국의 위상으로 직결되는 시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는 평화와 번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영을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과 한민족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8천만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을 향해 뚝뚝뚝뚝 함께 걸어갑시다.

역동적인 성장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1.1.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2026년 병오년 띠별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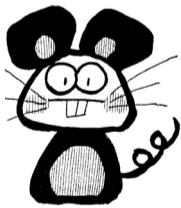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해, 불의 기운이 강한 병오년의 흐름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으로, 하늘의 기운인 '병(丙)'은 양의 불(火)을, 땅의 기운인 '오(午)' 역시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열정과 경쟁, 창조와 변혁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해입니다. 그만큼 기회도 많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열정이 과해져 탈이 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띠별로 2026년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자생의 기운, 새로운 시작)

2026년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직장인이자 승진 운이 들어오며, 사업가는 새로운 거래처나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니 과로와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운은 상승세이며, 연애운도 활발해집니다. 단, 선택의 순간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소띠 (인내의 결실, 성실함의 보상)

지난 몇 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꾸준히 준비해온 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서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나, 소화기 계통 주의.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가족 간 화합이 중요한 해입니다.



호랑이띠 (기회와 도전의 해)

병오년의 불 기운은 호랑이띠에게 강한 추진력과 자신감을 줍니다. 새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다만 급하게 판단하면 손해가 따르니, 순간의 감정보다는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뜨겁지만 오래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다가가세요.



토끼띠 (관계의 해, 조화와 균형)

인맥과 협력이 복을 부르는 해입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가 빛나며, 주변의 도움으로 성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 운이 열립니다. 재물운은 꾸준히 상승하지만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순조롭고, 감정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용띠 (변화와 전환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한 해입니다. 직업이나 거주지 변화, 사업 전환 등을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불 기운이 용띠의 열정을 자극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허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면 큰 성취 가능. 연애운은 진전이 빠르며, 싱글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뱀띠 (성취의 해, 실수를 챙겨야)

운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재물운이 강하고 투자나 부동산 관련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확장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하니 언행에 신중을 기하세요.



말띠 (주인공의 해, 자신감 상승)

2026년 병오년은 말띠의 해로, 주인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운이 강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갈등을 주의하세요. 건강운은 좋지만, 불면과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띠 (내실을 다져야 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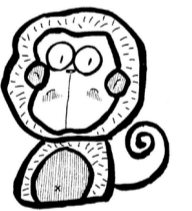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거나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것을 다듬고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운은 보통이지만 지출이 늘 수 있으니 절약이 필요합니다. 감정 기록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연애운은 느리지만 진지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원숭이띠 (지혜와 전략이 빛나는 해)

병오년의 불 기운은 원숭이띠의 재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높아져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질투나 경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운은 상승하지만 충동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연애운은 화려하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닭띠 (명예와 기회의 해)

성과가 가시화되고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공직, 예술,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상승세지만 허영심으로 인한 소비를 주의하세요. 건강은 호전되며,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개띠 (변화의 물결 속 균형이 필요)

새로운 환경이나 계획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이동, 인간관계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 감정 기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재물운은 중간 수준, 연애운은 진심으로 대하면 인연이 깊어집니다.



돼지띠 (안정과 정리의 시기)

2026년은 급한 변화보다 안정과 정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해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꾸준하지만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 관리에 집중하세요. 건강은 무난하나, 체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연애운은 진정성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인터넷 자료)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Депутат отметил, что все права, срок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х истекает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или позже, необходимо заменить. Автопродление на них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아위토 조사 “러시아인 76%, 2026년 새해에 삶의 변화 원해”

아위토 부동산과 아비토 여행은 새해를 앞두고 러시아인의 2026년 계획을 주제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삶의 일부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9%는 1월 1일부터 변화를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4세(48%)와 25~34세(38%) 연령층은 특정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상징적인 날짜에 대한 집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여유와 안정성(38%)을 꼽았고, 이어 명확한 계획 수립(28%), 가족이나 파트너의 지지(23%)가 뒤를 이었다. 극동 연방 관구에서는 응답자의 31%가 변화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날짜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새해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특히 업무와 커리어(30%), 가족 및 인간관계(14%)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변화 분야는 커리어(29%)였다. 새 직장을 찾거나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관계 개선(16%), 이사나 주택 구입 등 주거 환경 변화(15%), 여행 확대(10%)가 뒤를 이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수리나 구조 변경을 계획한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다른 도시로의 이주, 첫 자가 마련, 현재 도시 내 더 넓은 주거 공간으로의 이전(각각 14%), 교외 이주(10%)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는 응답은 5%였다.

연령대별로는 지역 이동에 대한 관심은 55~64세(21%)에서, 기존 주거 공간 개선은 65세 이상(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 주택 마련 계획은 25~34세(19%) 연령층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가족 대상 우대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주요 새해 목표로 꼽았다.

여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1%가 러시아 국내 여행을 더 자주 다니고 싶다고 답했으며, 65세 이상 응답자가 운데서는 그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또한 주말을 활용한 짧은 여행(39%), 장기 여행과 해외여행(각각 24%), 소도시 탐방(22%)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18~24세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고급 호텔 숙박(22%)이나 새로운 도시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18%)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에게 1년에 2~3개월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 묻자, 26%는 바다나 산 인근의 전원주택이나 빌라 임차를 선택했다. 25%는 다양한 주거 방식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답했으며, 전용 주택 구입(20%), 도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임차(16%), 서비스형 아파트 호텔 체류(8%)가 뒤를 이었다.

В Авито узнали о планах россиян на 2026 год

Авито Недвижимость и Авито Путешествия провели опрос в преддверии наступления Нового года. Так, 76% россиян хотели бы изменить что-то в жизни, а 29% планируют начать действовать с 1 января. Причем к дате гораздо чаще привязываются опрошенные от 18 до 24 лет (48%) и от 25 до 34 лет (38%), в то время как более старшие поколения спокойнее относятся к символическим числам.

По мнению опрошенных,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лучше всего помогает финансовая подушка и стабильность (38%), четкий план (28%) и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или партнера (23%). Что касается жителей ДФО, планы на изменения есть, но не привязаны к дате у 31% опрошенных и такое же количе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 хотят

многое изменить с Нового года. Прежде всего планируют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работу и карьеру (30%), семью и отношения (14%).

Чаще всего (29%) россияне хотят изменений в карьере: найти новую работу или сменить профессию; 16% опрошенных назвали сферу семьи и отношений, 15% задумываются об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переезде, покупке новой квартиры или загородного дома, 10% хотят больше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Говоря о жилищном вопросе, россияне чаще всего делились планами о ремонте или перепланировке в текущем жилье (25%), желании переехать в другой город, купить первую собственную недвижим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или снять более просторную квартиру в своем городе (по 14%), либо переехать в пригород (10%). Про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для отдыха или инвестиций заявили 5%. О планах сменить регион больше говорили опрошенные в возрасте от 55 до 64 лет (21%), про апгрейд текуще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 люди старше 65 лет (38%), о покупке первого жилья — от 25 до 34 лет (19%). Они же чаще других среди целей на Новый год называли желание взять ипотеку, в том числе семейную.

Что касается путешествий, то опрошенные хотели бы совершить больше поездок по России: так ответил 41%, причем среди респондентов старше 65 лет таких ровно половина. Также россияне планируют больше коротких путешествий по выходным (39%),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е поездки и посещение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по 24%), хотя открывать малые города (22%). Опрошенные с 18 до 24 лет чаще других думают о том, чтобы побывать в классных отелях (22%) и в новых городах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18%).

Также у россиян спросили, какой вариант жилья бы они предпочли, если бы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2-3 месяца в году жить в другом месте. Снять загородный дом или виллу у моря или в горах хотели бы 26% опрошенных,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ные форматы проживания — 25%, приобрести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ь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 20%, арендовать квартиру или апартаменты в городе — 16%,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апарт-отелях с сервисом — 8%.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욱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30 декабря 2025 г. 15-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